

『1872년 郡縣地圖』중 全羅道地圖의 회화식 표현 분석

김 성 희 *

I 머리말
II. 『1872년 군현지도』중 전라도 지도의 제작과 내용
1. 구성과 제작 주체
2. 시대상이 반영된 내용
III. 『1872년 군현지도』중 전라도 지도의 회화적 특징
1. 산도(山圖) 형식의 구도
2. 산형의 표현
3. 지역 상징경관의 묘사
IV. 맺음말

I. 머리말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된 『1872년 군현지도』는 조선 말기 전국 군현의 모습을 회화식으로 그린 지도로 그 수가 무려 461장이나 된다.¹ 군현지도는 국가 행정

* 문화재청 문화재감정관실 문화재감정위원

¹ 1872년에 제작된 군현지도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地圖名이 없다. 연구자에 따라 ‘고종대 군현지도’, ‘조선후기 지방지도’, ‘1872년 군현지도’, ‘1872년 지방지도’, ‘1872 지방군현지도’ 등으로 지칭되어 왔으나, 본 논문에서는 지도에 표기된 ‘同治十一年’의 제작 시기와 전국의 군현을 대상으로 수합된 地圖集의 의미를 포괄하여 『1872년 군현지도』로 지칭하여 내용을 전개하려 한다. 양보경, 『조선시대의 지방지도: 고종대 군현지도를 중심으로』, 『조선시대 지방지도』(서울대학교 규장각, 1995), pp. 69-70; 배우성, 『1872년 군현지도 제작의 배경』, 『조선후기 지방지도: 경기도편 해설색인』(서울대학교 규장각, 2005), pp. 7-9; 김기혁, 『지역문화 연구 자료로서 고지도 및 지리지-조선 후기 군현지도를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30,3(2007), pp. 119-142;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홈페이지(<http://e-kyujanggak.snu.ac.kr/>) 원문자료 검색으로 들어가면 분류별 보기, 고지도, 필사본(회화식) 항목에서 ‘1872년 지방지도’의 이름으로 원문 이미지와 해제를 확인할 수 있다.

과 통치를 위한 자료로 활용되었으며 조선후기에는 지방의 실정을 파악하기 위한 군현지도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면서 국가사업의 전국 또는 도 단위로 군현지도집의 제작이 증가하였다.²

전국의 대규모 지도편찬 사업은 국가의 정치적 격변기 내지는 개혁기에 이루어져 왔다. 『1872년 군현지도』의 제작은 당시 정권을 잡은 흥선대원군이 중앙집권적 통치 체제를 확립하고 정치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각 지방의 정보를 수집한 것과 관련이 있다. 1871년 전국 읍지(邑誌) 편찬을 시작으로 1872년에 관방(關防) 지역을 포함한 대형의 군현 지도를 기획하였다. 『1872년 군현지도』에는 흥선대원군이 새롭게 시행했던 정책들을 상징하는 내용이 반영되었으며 군사적 측면이 강조되어 있어 흥선대원군의 개혁 정책과 국방력 강화의 일환으로 탄생한 것임을 알 수 있다.

『1872년 군현지도』는 대상 지역이 비교적 좁은 규모에 해당하므로 공간의 시점이나 산지의 묘사에서 지역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회화기법이 구사되었다. 따라서 『1872년 군현지도』는 조선말기 지방사회의 모습과 역사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사료로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과 동시에 회화성이 강조된 지도라는 점에서 회화사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1872년 군현지도』는 표현 방식에서 고을마다 편차를 보이며 19세기 말 전국의 지도 제작 양상을 살펴볼 수 있는 대표적인 회화식 군현지도이다. 그중에서 전라도 지도는 전형화된 구도와 화려하고 장식적인 채색으로 지도적 완성도를 높였으며 다른 지방의 지도와 구별되는 통일된 체계를 갖추고 있어 주목하였다. 본고에서는 『1872년 군현지도』 중 가장 회화성이 돋보이는 전라도 지도의 표현 방식에 초점을 맞추어 회화적 특징과 제작 방식을 살펴보고 지도 제작의 주체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Ⅱ. 『1872년 군현지도』 중 전라도 지도의 제작과 내용

1. 구성과 제작 주체

국가 주도로 편찬된 『1872년 군현지도』는 의정부(議政府)의 하달(下達)을 받은 각도

² 양보경, 「조선후기 군현지도의 발달」, 『문화역사지리』 7(1995), pp. 55-63.

관찰사가 군현의 수령에게 지도 제작의 지침을 전달하고 각 군현에서는 1872년 3월에서 6월에 걸쳐 지도를 완성하였다.³ 각기 다른 실정의 군현에서 제작된 지도들은 지도마다 크기와 표현 양식 등이 다르며 접포(摺鋪) 형태로 장황(粧潢)된 지도첩의 일부에는 처음 지도를 작성한 군현에서 수령이 찍은 관인(官印)이 압인되어 있어 지도를 제작하고 장황하는 단계까지 각 군현에서 자체적으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⁴

그러나 『1872년 군현지도』 중 전라도 지도는 다른 지역의 지도와는 달리 체제의 통일성을 갖추고 있다. 지면의 구성은 도곽(圖廓)안에 지도를 그리고 지도 여백에 지역의 건치연혁 및 도로, 고적 등을 공통적으로 기록하였으며 지형 표현방식은 산도(山圖) 형식의 구도에 산지를 청록색으로 채색하고 면(面), 리(里)는 청색, 녹색, 홍색, 백색, 황색 등의 색도형으로 구분하는 방식을 적용하였다. 지도첩의 장황도 모두 황색으로 선염된 황지(黃紙)에 만자능화문(卍字菱花紋)을 새긴 능화지를 사용하였으며 좌측상단에 붙인 제명(題銘)에는 전라도(全羅道), 전라우도(全羅右道), 전라좌도(全羅左道)를 구분해서 기록하였다. 이는 전라감영에서 각 군현의 지도를 모아 다시 베껴 그리는 과정을 거치면서 함께 장책(粧冊)되었기 때문이다. 전라도 지도의 크기는 작은 지도가 80.6×52.5cm에서 큰 지도가 125.9×75.2cm까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지도첩의 크기는 35.0×25.0cm로 동일하다.⁵

전라도 지도는 군현을 그린 56장의 지도 이외에도 옥구현의 군산진, 만경현의 고군산진, 부안현의 검모포와 위도진, 영광군의 법성진, 다경포, 임자진, 함평현의 임치진, 무안현의 목포진, 영암군의 어란진, 이진진, 추자도, 나주목의 흑산도와 지도진, 진도부의 남도진과 금갑진, 영암군의 청산진, 강진현의 신지도진, 고금도진, 마도진, 장흥부의 회령포진, 흥양현의 여도진, 사도진, 발포진, 녹도진, 광양현의 섬진진, 순천부의 방답진과 고돌산진 등 각 군현에 속한 섬, 진지, 포구 등을 별도로 그린 지도 28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라도 56개 군현 중 부안현의 지도가 누락되었고 조선시대에 전라도에 속해 있던 제주도 지도가 포함되어 있는데, 『제주삼읍전도』에 제주목, 대정현, 정의현 지도가 각 한 장씩 첨부되어 총 81첩 84장이다.

전라도 지도가 일정한 양식을 유지하며 청록산수화풍의 높은 회화적 수준과 지도적

³ 『1872년 군현지도』의 일부 冊衣에는 지도의 완성시기가 同治十一年三月에서 同治十一年六月로 표기되어 있어 약 4개월이라는 기간에 전국적으로 지도 편찬 사업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⁴ 지도류와 같이 포개어 접는 방식의 접포류는 鋪를 단위용어로 기술한다. 한국도서관협회 목록위원회 편저, 『제4장 고서와 고문서』, 『韓國目錄規則』(한국도서관협회, 2003), p. 187.

⁵ 『1872년 군현지도』의 제작과 장황 형태는 김성희, 『1872년 郡縣地圖의 제작과 회화적 특징: 전라도 지도를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15), pp. 9-43 참조.

완성도를 보이는 것은 당시 전라감영에 파견된 화사군관의 제작 성향과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조선후기에 도화서 화원을 대상으로 통제영(統制營), 병영(兵營), 수영(水營) 등의 상급군영과 감영(監營)에 파견된 화사군관들은 국가업무나 국가사업에 화원으로서 필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특히 지방 통치를 위한 자료로 국왕이 직접 확인하지 못하는 지역의 주요한 장소나 지도를 그려 올렸으며 여기에는 회화적 기술을 익힌 화원들의 화풍이 반영되었다.

화사군관의 임기는 2년이며 전라도는 감영을 포함해서 전라도 병영, 전라도 좌수영 3곳에 파견되었다. 『전라감영지(全羅監營誌)』 관직조에 전라감영의 조직구조는 대솔군관(帶率軍) 7명, 사자군관(寫字軍官) 1명, 화사군관(畫師軍官) 1명 등 총 9명의 군관이 감영을 구성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⁶ 1872년에 전라감영인 전주에 근무하며 실질적으로 지도제작에 참여하였을 화사군관은 이응모(李應模, 1800~?)로 확인된다. 이응모는 경주 이씨 출신으로 70세에 파견되어 1870년부터 1874년까지 전주에 4년을 근무했다.⁷

같은 시기 전주감영의 관찰사는 이호준(李鎬俊, 1821~1901)으로 1870년(고종 7) 1월에 도입해서 1873년(고종 10) 12월까지 47개월간 근무하였다.⁸ 본래 관찰사의 임기는 2년이지만 이호준이 전라도 관찰사로 역임하면서 정사(政事)에 기록할 만한 성과가 있었고 고을들이 복종하였으며 온 고을의 백성이 모두 유입하기를 바랐기에 임기가 2년 더 연장된 것이다.⁹ 이호준이 재임하던 시기는 1871년에서 1872년에 걸쳐 국가에서 전국 읍지와 지도 제작의 명이 내려진 시기로 국가의 요청에 따라 전라도 지역의 지도편찬을 주관하게 된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지도사업이 두 차례나 연이어 진행되는 상황에서 관찰사의 요구로 화사군관의 임기도 유입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전라도 지도가 다른 지역의 지도와 달리 일정한 양식을 갖춘 채색지도로 탄생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관찰사의 기획력과 원로화가의 노련한 기량이 발휘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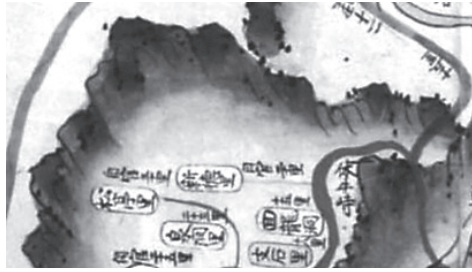
감영에서의 지도 필사 작업은 병수영에 소속된 화원들도 함께 참여되었으며 이는 병수영이 위치한 지역의 지도와 동일한 제작 방식을 보이는 지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6 이희권, 「전라감영의 조직구조와 관찰사의 기능」, 『전라감영연구』(전주역사박물관·전북대 전라문화연구소, 2008), p.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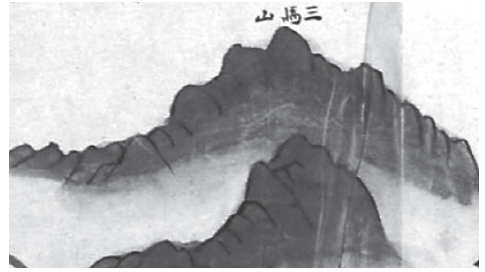
7 이훈상, 「조선후기 지방 파견 화원들과 그 제도, 그리고 이들의 지방 형상화」, 『동방학지』 144(2008), p. 325 <표 4> 참조.

8 이동희, 「조선시대 전라감사의 출신 및 임용실태」, 『전라감영연구』(전주역사박물관·전북대 전라문화연구소, 2008), p. 88 <별표 1> 조선시대 전라감사 일람표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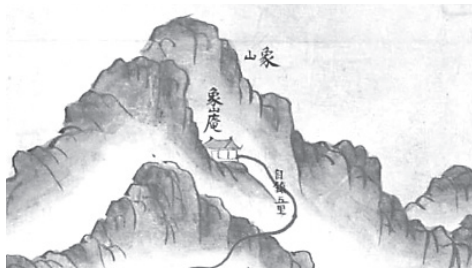
9 『고종실록』 8권, 고종 8년 9월 15일, “完伯瓜期 不遠矣 此道臣按藩以後 實心實政 蔚有可紀 地望所推 列郡殫歷 誠力所到 窮鄙賴安 一道軍民 咸願久留 全羅監司李鎬俊 待箇滿 限一瓜仍任 以副群情何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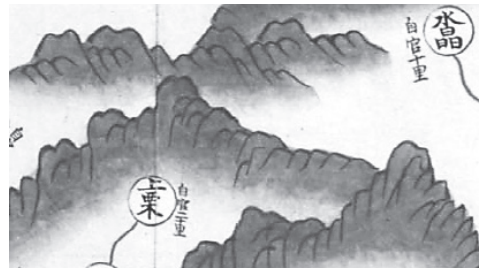
도 1 「강진현지도」 부분, 1872, 채색필사본,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 2 「강진현마도진지도」 부분, 1872, 채색필사본,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 3 「강진신지도진지도」 부분, 1872, 채색필사본, 서울대학교 규장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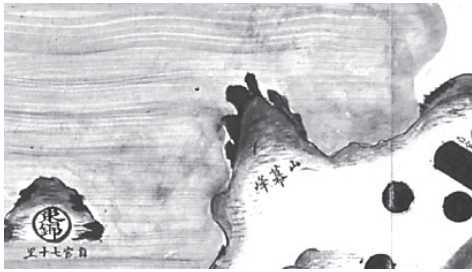


도 4 「낙안군지도」 부분, 1872, 채색필사본, 서울대학교 규장각

「강진현지도」는 산형이 도식적이긴 하지만 산봉우리의 굴곡진 능선을 입체적으로 표현하고자 하였으며 필선은 힘 있게 꼭 눌렀다가 끝에서 가늘게 빠는 탄력적인 필력이 구사되었다(도 1). 이러한 표현은 회화적으로 훈련된 화원의 솜씨로 보이며 당시 전라병영인 강진에 파견되어있던 경주 김씨 화원 가문 출신의 김국빈(金國彬)에 의해 제작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¹⁰ 「강진현지도」의 산형 묘사는 「강진현마도진지도」(도 2), 「강진현고금도진지도」, 「강진신지도진지도」(도 3), 「임치진지도」, 「용안현지도」, 「금산군지도」, 「금구현지도」, 「낙안군지도」(도 4)에서도 같은 방식이 구사되었다. 그러나 색채는 균록색, 청록색, 녹색계열의 세 가지 유형을 보이며 각각 다르게 채색되어 있어 지도 제작에서 밑그림과 채색 작업이 분업으로 진행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전라우수영이 위치해 있는 「해남현지도」(도 5)와 인접 지역인 「무안목포진지도」(도 6), 「무안현지도」(도 7), 「나주지도」(도 8) 역시 같은 화풍으로 제작되었다. 녹색으로 칠한 산 표면에 피마준과 미점준의 잔영으로 보이는 짧은 선을 긋고 기암절벽을 묘사하기 위해 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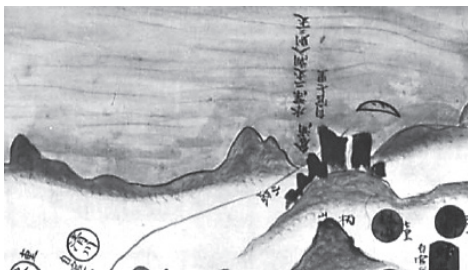
¹⁰ 이훈상, 앞의 논문, p. 329 <표 5>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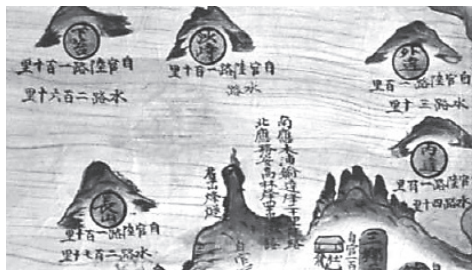
도 5 「해남현지도」 부분, 1872, 채색필사본,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 6 「무안목포진지도」 부분, 1872, 채색필사본,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 7 「무안현지도」 부분, 1872, 채색필사본,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 8 「나주지도」 부분, 1872, 채색필사본, 서울대학교 규장각

색의 안료로 바위 형태를 덧그린 표현은 같은 화가에 의해 제작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바다 표현은 「해남현지도」와 「무안목포진지도」가 1~1.5cm 굵기의 붓을 사용해서 수평으로 붓자국을 남기며 청색의 담채로 물결을 표현하였고 「무안현지도」와 「나주지도」는 청색의 담채로 먼저 선을 가늘게 그어서 물살을 묘사한 뒤에 다시 청색 담채를 칠하는 기법으로 채색 방식에 약간의 변화를 주었다. 그러나 앞의 「강진현지도」 화풍의 지도들과 비교하면 필력의 수준과 산형의 묘사 등 회화적 기술력은 다소 부족하다. 또한 도내 지방관 명단인 『도내관안(道內官案)』에 전라우수영은 화사군관이 파견되지 않은 지역이므로 아마 해남현에 소속된 지역 화사에 의해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¹¹

감영을 통한 지도의 필사 작업은 기본적으로 감영이나 군영에 파견되어 있던 화사군관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러나 당시 지방에 파견되는 화원의 수는 한정되어 있었는데 반해 국가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방에서 그려 올려야 할 지도의 수는 증가하고 있었기 때문에 감영은 자체적인 해결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지역 출신의 화사

¹¹ 이훈상, 위의 논문, p. 309

또는 사찰에서 활동하는 화승(畵僧)에게 지도 제작을 의뢰했을 가능성이 크다.¹² 1886년 경에 승려화가가 그렸을 것으로 보이는 전남 순천의 <송광사 전경도>는 경내 건물들과 부속 암자들의 배치가 상세하며 주변 산세를 사방시로 담은 개화형 구도가 1872년 전라도 지도의 표현 방식과 유사하다.¹³

2. 시대상이 반영된 내용

19세기 말의 정치상황은 흥선대원군을 중심으로 세도가의 정치세력이 재편되었고 흥선대원군은 조선 부국책(富國策)의 의지를 가지고 국가 정책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였다. 특히 서양세력에 대해서는 강경한 통상수교거부정책을 펴나갔다.¹⁴ 전라도 지도는 당시 정부의 변화된 정책들을 상징하는 내용을 반영하고 있으며 산천을 비롯한 자연 경관은 물론 읍치와 주요 관청 건물, 주변의 촌락, 도로, 시장, 문화유적 등 생활공간으로서의 지역의 모습을 입체적으로 전달하였다.

흥선대원군은 민생안정을 회복하기 위한 정책으로 환곡제도를 개혁하여 마을 단위로 공동 운영하는 민간자치의 사창제도(社倉制度)를 실시하였다. 1872년 전라도 지도에는 총 570곳에서 사창이 확인된다. 또한 지도에 표시된 조운선로(漕運船路)는 국가의 조세징수와 관련하여 곡창지대인 전라도에 수로(水路)를 통한 조운선이 발달해 있었음을 보여준다.¹⁵ 강변이나 해변의 세션 도착지와 출발지에는 창고가 함께 그려져 있다. 「함평현지도」에는 함평만의 손불면(孫佛面) 해안가에 사창을 비롯하여 해창(海倉), 전세고(田稅庫), 대동고(大同庫)가 설치된 모습이 보이고 세곡을 서울로 운반하던 세선(稅船)의 모습도 상세하여 이 지역이 수로를 통한 물자의 교류가 활발했음을 엿볼 수 있다(도 9). 「무안목포진지도」, 「강진현마도진지도」, 「장흥부회령포진지도」, 「법성진지도」, 「홍양현녹도진지도」, 「홍양현발포진지도」에는 바다에 수로(水路)를 그리고 조운선로임을 표시하였다(도 10).

¹² 18세기 지방의 군영에서 군사훈련에 필요한 도형을 그릴 때 화승을 활용한 사례가 있다. 『嘉林報草』戊午 七月日 報水營: 배우성, 「18세기 全國地理志 편찬과 지리지 인식의 변화」, 『韓國學報』 22.4(1996), p. 159 에서 재인용.

¹³ 이태호, 「일제강점기에 전승된 開花形 사찰지도: 부산 범어사와 양산 통도사의 全景圖 및 그 형식적 연원에 대하여」, 『한국지도연구』 2.2(2010), pp. 12-13.

¹⁴ 흥선대원군은 훗날 청나라에서의 유폐 생활 중 자신의 집권 기간을 회상하며 “10년 동안 국왕의 정사를 도우면서 나라를 富國하게 하고자 하였으며 두 차례의 洋亂을 당했다.”고 기록하고 있다(十年輔政 自以欲富國之策 又當二次洋亂而已 別無可稱之事也). 성대경, 「大院君의 保定府談草-吳汝綸 對談記」, 『향토서울』 40(1982), p. 135.

¹⁵ 김옥근, 「조선시대 조운제 연구」, 『경제학연구』 29.1(1981), pp. 1-23.



도 9 「함평현지도」 세선과 해창 부분, 1872, 채색필사본,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 10 「홍양현발포진지도」 조운선로 부분, 1872, 채색필사본, 서울대학교 규장각

뿐만 아니라 지도에 표시된 장시(場市)와 점막(店幕)은 조선 후기 상업의 발달과 함께 물산(物産) 유통의 근거지로서 장소와 유통경로가 점차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¹⁶ 「강진현지도», 「곡성현지도», 「광양현지도», 「구례현지도», 「낙안군지도», 「운봉현지도», 「광양현섬진지도」에는 장시가 들어서 있고 장길 주변으로 점막이나 주점(酒店)이 표시되어 있다. 1872년 전라도 지도에는 장시가 28곳, 주점이 36곳으로 확인된다.

고을 곳곳에 기록된 서원궐기(書院毀基), 서원고지(書院告址) 등은 1865년부터 1871년까지 흥선대원군이 강행했던 서원철폐의 정황을 보여준다. 흥선대원군은 왕권의 권위를 높이고 국가재정의 낭비를 줄이고자 사액서원(賜額書院)이나 사우(祠宇)를 우선으로 47개소만을 제외하고 전국의 서원을 정비하였으며 전라도 지역은 태인현의 무성서원(武城書院), 장성부의 필암서원(筆巖書院), 광주목의 포충사(褒忠祠) 3곳을 남기고 모두 훼손되었다.¹⁷ 「태인현지도», 「장성부지도», 「광주목지도」에는 남아있는 3개 사원이 모두 기록되어 있고 「담양부지도」에는 향교 옆에 유희춘(柳希春, 1513~1577)을 배향한 의암서원이 의암서원고지(義巖書院告址)로 표시되어 있다.

한편 당시 서양 열강들의 공세가 강화되던 국제정세 속에서 병인양요와 신미양요로 두 번의 양난을 겪은 후에는 이양선이 출현하는 바닷가 지역을 위주로 포군을 설치하도록 지시하였다. 1870년 삼군부에서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전국 대부분 지방에 포군이 설치되었으나 『1872년 군현지도』에는 경상도와 전라도 해안지역의 지도를 중심으로만 확인되어 실제 전국의 포병 현황과는 차이가 있다. 「고창현지도», 「구례현지도», 「진도부지도», 「함평현지도」에는 병사들에게 조총훈련을 강화하고 이를 시험하기 위해 설치한 화포청(火砲廳)과 포수청(砲手廳)이 확인된다(도 11). 「강진신지도진지도», 「강진현마도진지도», 「나주

¹⁶ 김대길, 「조선후기 장시발달과 사회·문화 생활변화」, 『정신문화연구』 35.4(2012), pp. 87-113.

¹⁷ 『龍湖開錄』 4(국사편찬위원회, 1980); 윤희면, 「고종대의 서원 철폐와 양반 유림의 대응」, 『한국근현대사연구』 10(1999), pp. 151-182.



도 11 「진도부지도」 화포청 부분, 1872, 채색필사본,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 12 「부안위도진지도」 전선 부분, 1872, 채색필사본, 서울대학교 규장각

지도진지도, 「부안위도진지도」, 「영광임자진지도」, 「임치진지도」, 「홍양사도진지도」, 「홍양현녹도진지도」, 「홍양현발포진지도」, 「홍양현여도진지도」 등 별도로 제작된 진지도에는 후선(候船), 구선(龜船), 병선(兵船)과 전선(戰船) 등 각종 선박의 모습이 상세하게 그려져 있어 군사시설의 확충과 국방 경비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도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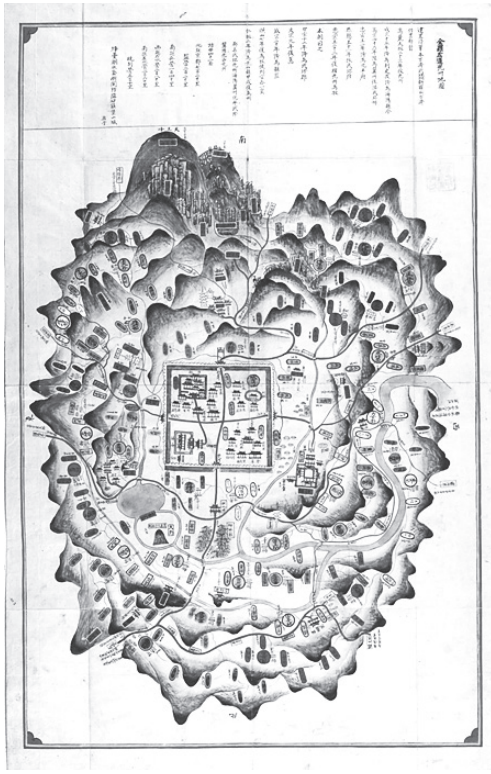
Ⅲ. 『1872년 군현지도』 중 전라도 지도의 회화적 특징

1. 산도(山圖) 형식의 구도

전라도 지도는 대부분 행정의 중심 공간이 되는 읍치(邑治)를 지면의 중앙에 배치하고 주변 산지는 읍치를 감싸며 사방으로 펼쳐진 구도이다(도 13). 이는 땅의 형세를 자연의 원리에 부합하는 명당 공간으로 형상화한 전통적인 산도(山圖) 형식을 따른 것이다.¹⁸

풍수론이 바탕이 된 산도는 수많은 산맥 중에서도 종주산(宗主山)에서 혈처(穴處)까지 흘러가는 산맥의 주된 흐름을 강조해서 그린다. 시점은 혈을 중심으로 360도를 조망하여 산봉우리가 사방으로 외반된 개화형(開花形) 구도를 취하므로 산도의 방위는 상단이

¹⁸ 산도(山圖)는 사용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되었다. 풍수지리와 관련해서는 산수도(山水圖), 용혈도(龍穴圖), 명당도(明堂圖)로 명명되며, 족보와 관련해서는 묘지도(墓地圖), 선영도(先塋圖), 선산도(先山圖)로, 국가의 왕릉과 관계될 때에는 능전도(陵殿圖), 산릉도(山陵圖), 태실과 관계될 때에는 태실도(胎室圖), 태봉도(胎封圖) 등으로 명명되고 있다. 이형윤, 『조선시대 산도를 통해서 본 지리인식』, 대구카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10), p. 1.



도 13 「광주목지도」, 1872, 채색필사본, 121.7×75cm, 서울대학교 규장각

항상 북쪽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맥(來脈)의 흐름을 주된 방위로 하여 상대적이 된다.¹⁹

조선은 건국 초기부터 도읍을 건설하고 왕릉(王陵)이나 태실(胎室) 등을 정할 때 산도를 그려 국왕에게 보고하였다. 1392년 태종은 함경도의 왕릉을 돌아보고 능의 형세를 그린 그림을 태조에게 바쳤다.²⁰ 이때 그려진 산릉도는 확인되지 않으나 18세기에 제작되어 전하는 《북도각릉전도형(北道各陵殿圖形)》을 통해서 그 원형을 짐작해볼 수 있다.²¹ 《북도각릉전도형》에 수록된 각 능전의 그림은 24방위를 표기하고 사적에서 바라본 모습대로 주위에 있는 산의 형상을 원형으로 둘러 그렸으며 당시의 화풍이 반영되어 미점준과 수지법(樹枝法)이 사용되었다. 그러나 조선 초기의 산도는 양식적으로 풍수론이 더욱 강조된 도안화된 모

습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산도 형식이 적용된 또다른 예는 1718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숙빈최씨묘소도형여산론(淑嬪崔氏墓所圖形與山論)>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숙빈최씨묘소도형여산론>은 영조의 생모인 숙빈최씨의 무덤 자리를 택하는 과정에서 제작된 것으로 땅의 형세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다. 바깥으로 누운 개화형 구도에 산봉우리의 능선은 짙은

¹⁹ 이형운, 위의 논문, pp. 88-96.

²⁰ 『태조실록』 2권, 태조 1년 10월 28일, “태종이 정릉 등이 있는 산의 형세를 그린 그림을 바치다: 今殿下來獻諸陵山勢畫本”

²¹ 정은주, 『『北道陵殿誌』와 <北道(各)陵殿圖形> 연구』, 『한국문화』 67(2014), pp. 225-266.

먹으로 윤곽을 그리고 세로 방향으로 반복하며 빗살을 그어 산맥을 강조하였다.²² 이렇듯 산도 형식은 산릉도나 묘산도와 같은 특수지도에서 특정한 지역의 형세를 읽는 방식에 효과적으로 작용하였다.²³

『1872년 군현지도』 중 전라도 지도는 고을의 경관을 묘사하는데 산도 형식이 그대로 적용되었으며 「광주목지도」, 「고창현지도」, 「용담현지도」, 「진산군지도」, 「금구현지도」는 전라도 지도 중 산도 형식이 가장 전형화되었다. 「광주목지도」는 읍성(邑城)을 화면의 중앙에 배치하고 읍성 주변의 산지는 사방으로 겹겹이 펼쳐 그려 읍성 공간을 부각시켰다(도 13). 「고창현지도」는 읍성을 기준으로 산지가 감싸 도는 사방시점의 구도이며, 녹색으로 채색된 산줄기 안쪽에는 색 도형으로 구분한 지명이 흩어져있어 흡사 꽃이 만개한 듯한 도상으로 표현되었다. 「금구현지도」는 읍치를 확대하고 읍치 중심으로 산지가 펼쳐지는 산도 형식이 강조되었으며 모악산에서 내려오는 산줄기가 읍치로 향하는 형세를 부각시키기 위해 동쪽을 지도의 상단으로 배치하였다.

이처럼 전라도 지도는 읍치나 읍성을 화면 중심에 배치하고 그 주위의 산봉우리가 사방으로 펼쳐진 개화형 구도를 취하여 고을의 중심 공간이 강조된 길지적(吉地的) 조건을 한눈에 드러내었다. 그런데 이러한 구성 방식은 1871년 『호남읍지』나 그 이전의 전라도 읍지도와는 관련성이 적고 1872년 군현지도 상송령에 의해 전라도 지도를 다시 제작하면서 풍수 논리가 강하게 반영된 독창적인 양식으로 창출된 것이다. 『1872년 군현지도』 중 전라도 지도는 산도 형식의 사방시 구도가 대부분이지만 시점에 따라 좌우측 또는 위아래 중 일부분만 외반된 일방시(一方視), 이방시(二方視), 삼방시(三方視)의 구도가 혼재되어 있다.

일방시는 전도(全圖)에서처럼 시점을 위로 향하게 그린 구도로 「홍양사도진지도」와 「홍양현발포진지도」가 일방시로 그려졌다. 이 두 지도는 홍양현 지역에 위치한 진영을 확대해서 따로 제작한 것이며 군사적 방어 기능의 거점으로서 산세의 험준함과 진영의 지리적 위치를 강조하기 위해 일방시점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이방시는 대개 큰 강이 지나가는 지역에서 물길을 중심으로 시점이 상, 하로 펼쳐진 구도로 그려진다. 「홍양현녹도진지도」, 「용안현지도」, 「곡성현지도」가 이방시로 그려졌다. 삼방시는 이방시의 구도에 좌향

²² 풍수적 지세에 대한 山論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이 산의 맥이 내려오는 세력은 웅장하고 기이하여 혈을 맺는 것이 精妙하고, 왼편으로 안고 오른편으로 돌며 좌청룡과 우백호는 서로 掛하고 앞으로는 맞이하고 뒤로는 안으며 主山과 마주하는 산이 有情하고 사방의 풍수적 지형이 각각 貴格을 얻고 도타움을 낳으며, 마주하는 하천은 모두 방위에 맞고 內堂은 긴밀하고 外局은 너르고 평평하며, 龜蛇, 華表, 捍門이 빼어나게 아름답고 날찍하게 트여있으면서도 긴속하게 여머져 있으니 실로 얻기 어려운 길지이다.” 왕실자료총서I, 『속빈최씨자료집 4 山圖, 碑文』(한국학중앙연구원, 2009), pp. 6-9.

²³ 이태호, 앞의 논문(2010), pp. 10-14.

(左向) 또는 우향(右向)의 시점으로 펼쳐지거나, 일방시의 구도에 좌향과 우향으로 동시에 펼쳐진 구도로 「만경현지도」, 「장흥부회령포진지도」, 「광양현섬진진지도」, 「부안검모포지도」, 「임실현지도」, 「옥곡현지도」, 「여산부지도」 등이 삼방시로 그려졌다. 삼방시의 구도는 해안가에 접해 있거나 큰 강이 지나가는 지역을 그린 지도에서 주로 확인된다.

그러나 이러한 시점의 변화는 반드시 지리적 조건에 따라 적용된 것이라기보다는 대상 공간에 대한 지도 제작자의 주관적 인식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생각된다. 『1872년 군현지도』 중 전라도 지도는 산도 형식의 사방시 구도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전라도 지도에 풍수지리관이 강하게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호남지방은 이미 18세기부터 자신들의 길흥과 화복을 위해 민간에서 풍수설이 크게 번져 있었으며 이러한 지역의 지리관이 지도제작에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²⁴

2. 산형의 표현

지도에서 산형의 묘사는 대상 지역의 자연환경을 시각적으로 드러내는 주된 요소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산지가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지도에서 산이 부각되며 산형의 모습은 지도의 표현 방식과 제작 시기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²⁵ 회화식 지도의 산형 묘사 방식은 전통적인 지도 화법에 따라 기호화하여 나타내거나 실경적 요소가 적용된 산수화풍으로 표현되었다. 특히 산수화풍의 산형 표현은 한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한 군현지도에서 주로 제작되었으며 18~19세기에 절정을 이루어 조선시대 지도의 특징으로 자리 잡았다.

『1872년 군현지도』에는 산을 단면화해서 이어 그리는 연맥식(連脈式)과 산봉우리를 ‘^’형으로 도식화한 정상기(鄭尙驥, 1678~1752)의 『동국지도(東國地圖)』 계통의 화법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한편 진경산수화풍의 잔영이 엿보이는 산수화풍과 19세기 민화풍 등 회화식 군현지도 제작 방식을 총체적으로 보여준다. 그 중 전라도 지도의 산형 표현은 산의 단면을 일정한 양식으로 도안화하여 연맥식이 강조된 ‘도안식 산형’과 산수화 준법을 사용해서 실경 묘사와 회화성이 강조된 ‘회화식 산형’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²⁴ 朴齊家は『北學議』의 ‘장례론’에서 “전라도 일대가 우심하게 나쁜 버릇이 들어서 열 집 가운데 아홉 집이 지관 노릇을 한다”고 기록하였다. 박제가, 이익성 옮김, 『북학의』(을유문화사, 2011), p. 194.

²⁵ 김성희, 「규장각 소장 <도성도(都城圖)>의 산세 표현」, 『한국고지도연구』 2.1(2010), pp. 27-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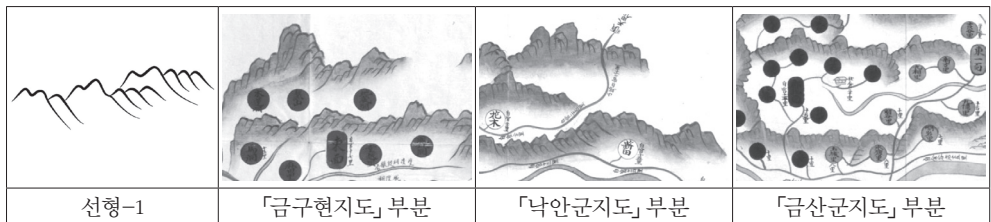
1) 도안식 산형

도안식 산형은 산등성이나 산봉우리의 단면을 일정하게 도식화하고 그 형태가 반복해서 이어져 연맥식이 강조된 형태를 분류한 것이다. 전라도 지도의 도안식 산형 표현에서 주목되는 것은 도식으로 나타낸 봉우리의 형태가 다시 네 가지의 유형으로 분류되며 네 가지의 유형이 지도에서 10점 이상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는 최소한 네 명의 화가가 지도의 밑그림을 그렸으며 한 사람이 10점 이상의 지도를 맡아 제작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도안식 산형 표현은 산형의 형태를 중심으로 다시 '선형'과 '봉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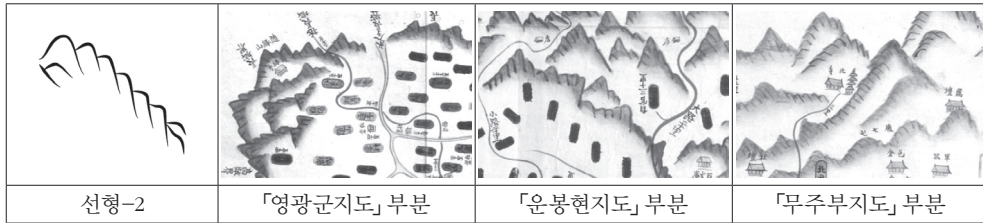
선형은 산의 등줄기를 따라 도식화한 형태로 '∧'형을 반복해서 산계의 줄기를 나타내던 정상기의 『동국지도』식 지도류와 유사한 계통으로도 볼 수 있으나 능선의 형태를 강조한 윤곽이 기호화되지 않고 유려한 필선의 회화적 표현력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선형으로 분류하였다. 선형은 능선의 형태에 따라 다시 '선형-1', '선형-2', '선형-3'으로 구분된다. 봉형은 산봉우리의 단면을 '△'으로 도식화한 형태이며 김정호의 『청구도』와 같이 삼각형의 봉우리들을 독립해서 그린 것이 아니라 서로 이어지며 산줄기가 강조되어 있어 따로 분류하였다. 봉형은 『1872년 군현지도』 중 전라도 지도에서만 확인되는 새로운 표현 방식이다.

① '선형-1' 유형은 굴곡진 산의 능선을 입체감을 살려 도식화한 형태이다. 「임치진지도」, 「용안현지도」, 「강진현지도」, 「강진현마도진지도」, 「강진현고금도진지도」, 「금구현지도」, 「낙안군지도」, 「금산군지도」, 「강진신지도진지도」 등이 이에 해당하며 주름진 바위산을 크게 한 번 그리고 그보다 작은 바위산을 2~3개 이어 그리는 것을 반복하였다. 산형을 그린 필선은 중봉을 사용하여 앞머리를 꼭 눌렀다가 끝에서 가늘게 빼는 탄력적인 필선이 구사되었는데 이러한 필법은 회화적으로 숙련된 화가의 필력이 요구된다 (도 14).

② '선형-2' 유형은 조선 후기 채색필사본 지도에서 연맥식 산형을 표현하는 가장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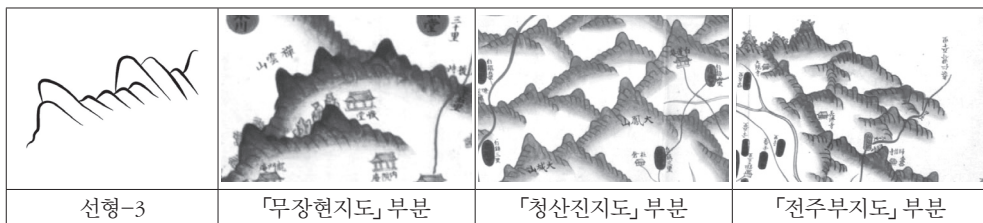
도 14 『1872년 군현지도』 중 전라도 지도의 '선형-1' 유형



도 15 『1872년 군현지도』 중 전라도 지도의 '선형-2' 유형

반적인 묘사법이라고 할 수 있다. 산의 형태를 '∧'형으로 기호화하여 산맥의 흐름에 따라 반복하는 형태로 산의 크기에 따라 이중으로 겹쳐 그리기도 하였다. 「광양현지도」, 「영광군지도」, 「운봉현지도」, 「정읍현지도」, 「법성진지도」, 「익산군지도」, 「무주부지도」, 「김제군지도」, 「군산진지도」, 「여산부지도」 등이 이에 해당하며 단 '∧'형의 필선이 좀 더 부드럽게 처리되었다(도 15).

③ '선형-3' 유형은 '∩'형의 봉우리를 크게 한 번 강조해서 그리고 작은 봉우리를 4~5개 이어 그린 형태이다. 「순천방답진지도」, 「무장현지도」, 「순천고돌산진지도」, 「고산현지도」, 「진도부금갑진지도」, 「진도부지도」, 「청산진지도」, 「전주부지도」, 「창평현지도」, 「고창현지도」, 「영암추자도지도」, 「영암군지도」, 「순창군지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순천방답진지도」, 「무장현지도」, 「순천고돌산진지도」, 「고산현지도」는 산형을 녹색으로 채색하고 봉우리 위에 부분적으로 진채색 안료를 칠해서 입체감을 나타내었다. 「진도부금갑진지도」, 「진도부지도」, 「청산진지도」, 「전주부지도」, 「고창현지도」는 먹선으로 산줄기를 그리고 녹색으로 채색하였는데 녹색 안료의 채색면과 농도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다. 「영암추자도지도」, 「영암군지도」, 「순창군지도」는 황색으로 산형을 칠하고 그 위에 녹색을 덧칠하는 채색기법이나 다른 지도들 보다 열은 담채로 채색되었다. 「창평현지도」는 산형이 황색의 단색으로 채색되었다(도 16).



도 16 『1872년 군현지도』 중 전라도 지도의 '선형-3' 유형



도 17 『1872년 군현지도』 중 전라도 지도의 ‘봉형’ 유형

④ ‘봉형’은 산봉우리의 단면을 ‘△’으로 도식화하고 산봉우리를 반복해서 이어 그려 산맥을 강조하였다. 「만경현지도」, 「광양현섬진지도」, 「임실현지도」, 「남원부지도」, 「함평현지도」, 「태인현지도」, 「장수현지도」, 「진안현지도」, 「곡성현지도」, 「화순현지도」 등은 모두 작은 산봉우리들이 이어져 있다. 채색은 「화순현지도」가 남색 안료로 농도를 조절하며 담채로 산형을 채색하였고 「곡성현지도」가 미점준과 피마준의 잔영으로 보이는 먹선들로 산의 표면을 묘사하면서 녹색의 담채로 산봉우리 부분을 채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진한 녹색으로 산형을 칠하고 남색으로 산봉우리 부분을 덧칠하여 산봉우리와 산봉우리 사이의 거리감과 입체감을 나타내는 방식으로 통일되었다. 그러나 「임실현지도」에 쓰인 남색은 유독 채도가 높고 발색이 다르다(도 17).

2) 회화식 산형

회화식 산형은 험준한 산세를 보이거나 특징적인 지형의 실경을 그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산형의 세부 묘사에 준법과 산수화적인 요소가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 회화식 산형 표현의 전라도 지도는 38점으로 이 지도들은 적게는 2점에서 많게는 7점이 같은 화풍으로 제작되었으며 화풍에 따라 다시 21가지의 유형으로 분류된다. 회화식 산형에 사용된 준법은 피마준과 미점준으로 산의 입체감을 나타내고, 부분적으로 바위산의 특징을 설명하고자 할 때에는 수직준과 부벽준을 혼용하여 바위의 질감을 나타내었다. 또 먼 산을 표현하고자 할 때는 외곽선 없이 산형의 실루엣만 그려 넣는 산수화법이 그대로 구사되기도 하였다. 회화식 산형으로 표현된 지도를 유형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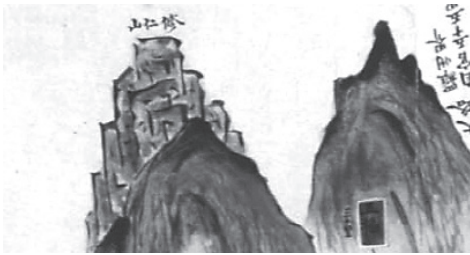
① 「홍양현발포진지도」와 「홍양현여도진지도」는 회화식 산형의 전라도 지도 중에서 산수화 준법이 가장 두드러지며 회화성이 강조되었다. 녹색과 청색으로 채색한 청록산수 화풍에 피마준과 미점준을 반복해서 입체감을 나타내고 소나무 숲은 산의 등줄기를 따라

점을 크게 툇툇 찍어 녹음이 짙은 모습을 드러냈다.

② 「장흥부지도」, 「홍양현지도」, 「홍양사도진지도」, 「홍양현녹도진지도」, 「담양부지도」, 「임피현지도」, 「보성군지도」는 청록산수화풍으로 녹색과 청색을 채색하고 산 표면에 가늘고 긴 피마준을 여러 번 반복해서 산봉우리의 입체감을 나타내었다. 세부적으로는 지역의 대표적인 비경들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실경을 전달하고자 하였다. 「장흥부지도」는 장흥부의 북서쪽에 자리한 수인산(修仁山)의 봉우리와 기암절벽을 실감 나게 묘사하였는데 특히 수인산의 절경으로 손꼽히는 병풍바위는 직각의 단층 바위로 묘사하고 실경보다 높이 쌓아서 과장되게 표현했다(도 18, 18-1).

③ 「만경현지방고군산진지도」, 「영광군다경포지도」, 「광주목지도」는 황색, 녹색, 청색 순으로 산형을 채색하고 산 표면에 피마준과 미점준의 잔영으로 보이는 짧은 선과 점들을 반복했다. 산형의 단면을 단순화해서 양식적으로 묘사하면서도 절경을 이루는 봉우리들은 실경의 특징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였다.

④ 「동북현지도」와 「순천부지도」는 나즈막한 산형이 이어지고 청록색의 채색으로 산맥의 흐름을 강조하였다. 산의 표면에는 짧은 선과 작은 점들로 입체감을 주고자 하였으며 부분적으로는 실경을 묘사하여 지역의 특징적인 경관을 전달하고자 하였다. 「동북현지도」에는 섬진강의 지류가 고을을 휘돌아 나가며 이룬 곳곳의 빼어난 절경들이 상세히



도 18 「장흥부지도」 수인산 부분



도 18-1 수인산 병풍바위 실경



도 19 「동북현지도」 적벽 부분



도 19-1 웅성산 적벽 실경

묘사되었다. 내서면(內西面) 보암(寶巖) 하천변에 발달한 적벽(赤壁)은 크고 수려한 절벽의 실경을 충실하게 묘사하였으며 하천 건너편에는 절벽의 비경을 감상했던 적벽정(赤壁亭)까지 그려져 있다(도 19, 19-1).

⑤ 「부안위도진지도」, 「나주지도진지도」, 「영광임자진지도」는 진영 주변의 산봉우리를 이어서 그리고 섬들은 녹색의 단색으로 소략하게 표현되었다. 섬은 육지 부분에 작은 바위를 이어 그려 육지와 바다의 경계를 표현하였다.

⑥ 「해남현지도」, 「무안목포진지도」, 「나주지도」, 「무안현지도」는 산봉우리를 강조하지 않고 낮은 구릉으로 이어서 그렸으며 산 표면에 짧은 선을 반복하였다. 녹색의 단색으로 산줄기의 흐름을 더욱 강조하였으며 청색으로 바위 형태를 덧붙였다.

⑦ 「진산군지도」와 「능주목지도」는 전반적으로 산형의 크기와 굴곡의 대비가 완만하게 이어지며 맥세(脈勢)를 강조하는 풍수적 지형이 강하게 드러난다. 흐린 먹선으로 산형의 윤곽을 잡은 후 황색, 녹색, 청색 순으로 채색하고 다시 그 위에 피마준과 미점준의 잔영으로 보이는 먹선을 긋는 방식으로 입체감을 표현하였다.

⑧ 「영암지방어란진지도」, 「영암군이진진지도」는 주름진 산봉우리들이 뾰족하게 보이도록 날카롭게 묘사하였으며 녹색으로 채색하고 봉우리에 부분적으로 남색을 덧칠해서 날카로운 봉우리가 더욱 부각되어 보인다.

⑨~⑳ 「나주지방흑산도지도」, 「고부군지도」, 「옥구현지도」, 「용담현지도」, 「장흥부회령포진지도」, 「옥과현지도」, 「함열현지도」, 「흥덕현지도」, 「구례현지도」, 「장성부지도」, 「부안검모포지도」, 「남도진여진지도」, 「남평현지도」 13점은 화풍이 각각 다르고 실경적 요소가 전달되는 산수화적 표현에서부터 민화풍의 표현도 확인되어 단독 화풍으로 13개 유형을 분류했다. 이처럼 회화식 산형은 화가의 개성에 따라 총 21가지의 유형으로 구분되며 이를 통해서 회화식 산형에 포함된 지도를 제작한 화가의 인원을 적어도 21명 정도로 예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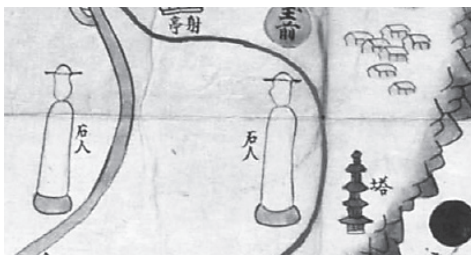
3. 지역 상징경관의 묘사

전라도 지도는 각 고을의 중요한 문화유적이거나 의미 있는 장소를 자세하게 묘사함으로써 지역의 모습을 입체적으로 전달하였다. 특히 주요 사찰(寺刹)들과 석탑, 석당간, 비각의 모습이 상세하게 그려져 있다. 「무장현지도」 동북쪽 선운산 아래에는 이 지역의 대사찰인 선운사(禪雲寺)와 내원암(內院庵), 동운암(東雲庵), 석상암(石床庵), 도솔암(兜率

庵), 용문암(龍門庵) 등의 여러 암자가 함께 그려져 있다. 암자들 사이에는 탑이 하나 그려져 있는데 이는 현재 선운사 대웅전 앞마당에 자리하고 있는 육층석탑을 그린 것으로 보인다. 「장흥부지도」 북쪽 가지산 아래에는 보림사(寶林寺)의 가장 큰 건물이었던 대웅전의 모습이 중층 8작 지붕으로 묘사되어 있고 건물 사이 탑의 모습은 현재 국보 44호로 지정된 삼층석탑 중 하나로 보인다.

「능주목지도」의 서쪽 호암면(虎巖面)에는 세 개의 탑을 그려놓고 수많은 석탑과 석불이 세운 운주사(雲住寺)를 상징적으로 표시했다. 남쪽 도림면(道林面)의 쌍봉사(雙峰寺)에도 석탑이 그려져 있는데 이는 국보 57호로 지정된 철감선사탑(澈鑿禪師塔)으로 보인다. 「담양부지도」에는 석당간(石幢竿)과 석탑이 그려져 있으며 이들은 현재까지 담양군 담양읍 객사리에 남아서 보물로 지정되어 있다. 「나주목지도」는 음성 동수문의 안과 밖에 당간인 목장(木樁)과 석장(石樁)이 그려져 있는데 석당간은 보물 제49호로 지정되어 지금까지 그대로 남아 있다. 「익산군지도」의 읍치 아래쪽에는 마주 서 있는 거대한 석인상(石人像)이 그려져 있는데 이는 현재 보물 46호로 지정된 익산고도리석불입상(益山古都里石佛立像)을 그린 것이다. 약 200m의 거리를 사이에 두고 마주 서 있는 2구의 석상으로 고을의 수호신으로 생각하여 지도에는 실제보다 크게 강조해서 그려 넣은 듯하다. 석인상의 오른쪽에 그려진 석탑은 현재 국보 289호로 지정되어 있는 익산왕궁리오층석탑(益山王宮里五層石塔)이며 지도에는 1단의 기단(基壇) 위로 5층의 탑신(塔身)을 올린 모습이 상세하게 그려졌다(도 20, 20-1).

그밖에도 지역을 상징하는 경관물이 묘사되었다. 「남원부지도」의 음성 남문 밖에는 소설 『춘향전』에서 이도령과 춘향이 인연을 맺은 장소로 널리 알려진 광한루(廣寒樓)와 오작교(烏鵲橋)가 묘사되어 있다. 「진산군지도」의 만인산에는 태조 이성계의 태실과 비를 부각시켜 그리고 태조대왕태실(太祖大王胎室)이라 표기했다. 또 북면에는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이 바위에 글자를 써서 새긴 수심대(水心臺)가 그려져 있다. 「순천부지도」 남문 밖



도 20 「익산군지도」 석인과 오층석탑 부분



도 20-1 익산고도리석불입상, 왕궁리오층석탑

연자교(燕子橋)를 건너면 승평부사(昇平府使) 최석(崔碩)의 청렴함을 기리기 위해 만든 팔마비(八馬碑)가 보인다. 이 비는 부사의 임기 만료 시 여덟 필의 말을 받던 폐단을 없앤 부사 최석의 고사를 기려 세운 비석으로 현재 전라남도유형문화재 제76호로 지정되어있다. 「전주지도」에는 읍성의 남동쪽으로 태조 이성계(李成桂, 1335~1408)의 어진(御眞)을 봉안했던 경기전(慶基殿)이 그려져 있으며 읍성 밖의 동남쪽에는 1380년에 남원의 황산에서 왜구를 물리치고 돌아가던 이성계가 승전 잔치를 베푼 곳인 오목대(梧木臺)가 표시되어있다. 이처럼 전라도 지도는 회화적 기법을 사용해서 지역의 모습을 상세하게 전달하고 있으며 사찰이나 정자, 누각 등의 건물이 부각되고 사찰에 설치되었던 탑, 당간 등이 상징적으로 표현되었다.

IV. 맺음말

『1872년 군현지도』는 조선 말기 전국 군현의 모습을 그린 회화식 지도이다. 각 군현에서 작성된 원본 지도가 그대로 합쳐졌기 때문에 이전의 군현지도집과 달리 통일된 체제를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당시 지방사회의 모습을 여과없이 보여주는 사료로서 의미를 지닌다. 표현 방식에서도 전통적인 연맥식에서 실경산수화를 보는 듯한 산수화풍, 정교한 필선과 화려한 채색기법, 거칠지만 개성적인 지역화풍에 이르기까지 기존의 군현지도 제작 기법을 총체적으로 반영하고 있어 19세기 말 전국의 지도 제작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회화사적 가치가 있다.

그중에서 전라도 지도는 도곽 안에 지도를 그리고 여백에 건치연혁을 기록하는 형식과 산도 형식을 바탕으로 지도를 구성하는 방식, 청록산수화풍의 색채와 색 도형으로 면명(面名)을 구분하는 등 통일된 체제를 갖추고 있어 다른 지역의 지도와 구별된다. 이는 전라도 각 군현에서 작성된 초본 지도가 감영을 통해 다시 옮겨 그리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이다. 지도 제작에는 중앙에서 파견되어 전라감영과 병영, 수영에 소속된 화원이 참여하여 회화적으로 숙련된 기술이 요구되는 중봉(中鋒)의 필선과 진채(眞彩)의 화려하고 선명한 채색기법으로 장식적이고 회화성이 높은 지도가 완성되었다.

이처럼 재현 대상을 이미지화하는 표현적 기능을 넘어 전라도의 경관이 예술적으로 승화된 지도가 탄생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당시 전라도 관찰사의 기획력과 화원의 노련한 기량이 발휘되어 가능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1870년부터 1874년까지 전주감영에 재임하

던 관찰사 이호준(李鎬俊, 1821~1901)은 1871년에서 1872년에 걸쳐 국가에서 주관하는 지도 사업이 두 차례나 연이어 진행되는 동안 전라도 지역의 읍지와 지도 제작을 주관하였다. 이호준과 같은 기간에 군관으로 재직하며 실질적으로 지도제작에 참여하였을 전주감영 화원은 70세의 원로화원 이응모(李應模, 1800~?)로 확인된다.

전라도 지도의 회화적 특징과 구체적인 제작 방식은 산형 표현을 분석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 전라도 지도의 산형 묘사는 산의 단면을 일정한 양식으로 반복한 ‘도안식 산형’과 산수화 준법으로 실경을 묘사한 ‘회화식 산형’으로 구분된다. 도안식 산형에서 주목되는 것은 도식으로 나타낸 봉우리의 형태가 다시 4가지의 유형으로 분류되며 4가지의 유형이 지도에서 10점 이상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는 최소한 4명의 화가가 지도의 밑그림을 그렸으며 한 사람이 여러 점의 지도를 맡아 제작하였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같은 유형으로 그려진 산형이라도 안료와 채색기법에서 차이가 있었으며 같은 채색이라도 산형의 형태가 다르게 그려진 것을 확인하였다. 채색 방식은 다섯 가지 계열로 분류되어 밑그림을 그리는 4명의 화가 이외에 5명의 화가가 채색작업을 보조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회화식 산형은 전라도 지도에서 40%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며 산수화 준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실경의 요소를 전달하였다. 이 지도들은 2점에서 많게는 7점이 같은 화풍으로 제작되었으며 모두 21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따라서 회화식 산형의 지도를 제작한 화가의 인원을 21명으로 예상할 수 있다. 즉 전라도 지도가 단기간에 통일된 체제를 갖춘 양식으로 완성될 수 있었던 것은 지도의 밑그림과 채색작업이 분업화되어 진행되었기 때문이며 전라감영에서 총 30여명의 화가를 동원한 대규모의 작업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주제어(Key Words)_1872년 군현지도(*Joseon County-Prefectural Maps of 1872*), 회화식 지도(pictorial map), 화원(court painter), 화사군관(dispatched painter), 전라도 지도(maps of Jeolla-do province), 흥선대원군(Heungseon Daewongun)

■ 투고일 2015년 5월 20일 | 심사개시일 2015년 5월 23일 | 심사완료일 2015년 5월 27일 ■

참고문헌

1. 문헌

- 『奎章閣志』, 한국학술정보(주), 2011.
『承政院日記』
『新增東國輿地勝覽』, 민족문화추진회, 1970.
『輿地圖書』, 국사편찬위원회편, 1993.
『국역 여지도서』 1-50, 디자인흐름, 2009.
규장각자료총서 지리지편(강원도읍지 3), 『花江邑誌』, 서울대학교규장각, 1997.
박제가, 『북학의』, 을유문화사, 2011.
서울대학교 규장각, 『조선후기 지방지도-전라도편』, 민족문화, 2005.
『邑誌』 1-19, 아세아문화사, 1982-1989.
왕실자료총서I, 『숙빈최씨자료집 4 山圖, 碑文』, 한국학중앙연구원, 2009.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http://e-kyujanggak.snu.ac.kr>

2. 저서 및 논문

- 국토해양부 국토지리정보원, 『한국지명유래집-전라·제주편』, 국토해양부 국토지리정보원, 2010.
김기혁, 「지역문화 연구 자료로서 고지도 및 지리지-조선 후기 군현지도를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30.3, 2007, pp. 119-142.
김대길, 「조선후기 장시발달과 사회·문화 생활변화」, 『정신문화연구』 35.4, 2012, pp. 87-113.
김성희, 『1872년 郡縣地圖의 제작과 회화적 특징: 전라도 지도를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논문, 2015.
_____, 「규장각 소장 <도성도(都城圖)>의 산세 표현」, 『한국고지도연구』 2.1, 2010, pp. 27-45.
김옥근, 「조선시대 조운제 연구」, 『경제학연구』 29.1, 1981, pp. 1-23.
박은순, 「19세기 회화식 군현지도와 지방문화」, 『한국고지도연구』 1.1, 2009, pp. 31-61.
박정혜, 『조선시대 궁중기록화 연구』, 일지사, 2002.
방동인, 『한국지도의 역사』, 신구문화사, 2001.
배우성, 「18세기 全國地理志 편찬과 지리지 인식의 변화」, 『韓國學報』 22.4, 1996, pp. 148-160.
_____, 「1872년 군현지도 제작의 배경」, 『조선후기 지방지도: 경기도편 해설색인』, 서울대학교 규장각, 2005.
안휘준, 「한국의 고지도와 회화」, 『해동지도』, 서울대학교 규장각, 1995.
양보경, 「조선시대의 지방지도-고종대 군현지도를 중심으로」, 『조선시대 지방지도』, 서울대학교 규장

- 각, 1995.
- _____, 「조선후기 군현지도의 발달」, 『문화역사지리』 7, 1995, pp. 55-63.
- 연갑수, 「大院君 執政의 성격과 權力構造의 변화」, 『한국사론』 27, 1992, pp. 207-279.
- _____, 『대원군집권기 부국강병정책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1.
- 이동희, 「조선후기 전라감사의 출신 및 임용실태」, 『전라감영연구』, 전주역사박물관·전북대 전라문화연구소, 2008.
- 이태호, 「朝鮮時代 지도의 繪畫性」, 『한국의 옛 地圖-자료편』, 영남대학교 박물관, 1998.
- _____, 「일제강점기에 전승된 開花形 사찰지도-부산 범어사와 양산 통도사의 全景圖 및 그 형식적 연원에 대하여」, 『한국고지도연구』 2.2, 2010, pp. 5-34.
- 이형운, 『조선후기 산도를 통해서 본 지리인식』, 대구카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 이현주, 「조선후기 동래지역 화원 활동과 회화적 특징」, 『역사와 경계』 83, 2012, pp. 37-70.
- 이훈상, 「조선후기 지방 파견 화원들과 그 제도, 그리고 이들의 지방 형상화」, 『동방학지』 144, 2008, pp. 305-366.
- 이희권, 「전라감영의 조직구조와 관찰사의 기능」, 『전라감영연구』, 전주역사박물관·전북대 전라문화연구소, 2008.
- 전종한, 「조선후기 군현지도에 재현된 공간인식과 공간의식」, 『문화역사지리』 20.2, 2009, pp. 112-126.
- 정은주, 「조선후기 繪畫式 郡縣地圖 연구」, 『문화역사지리』 23.3, 2011, pp. 119-140.
- _____, 「『北道陵殿誌』와 《北道(各)陵殿圖形》 연구」, 『한국문화』 67, 2014, pp. 225-266.
- 한국역사연구회 조선시기사회사연구반, 『조선은 지방을 어떻게 지배했는가』, 아카넷, 2008.
- 한영우, 안휘준, 배우성, 『우리 옛지도와 그 아름다움』, 효형출판, 1999.

국문초록

본 논문에서는 『1872년 군현지도』 중 전라도 지도의 산형 표현 방식을 중심으로 회화적 특징을 살펴보았으며 제작 방식과 실질적으로 제작에 참여한 인원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였다.

조선왕조에서 시행한 전국 군현지도 편찬사업의 마지막 성과물로 평가되는 『1872년 군현지도』는 이전의 관찬 군현지도집과 달리 통일성은 결여되었지만 19세기 말 변화된 정치, 경제적 상황과 군사적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당시 지방사회의 모습을 여과없이 보여주는 사료로서 의미를 지닌다. 또한 기존의 회화식 군현지도 제작 기법이 총체적으로 사용되어 각 군현의 지도 제작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도 가치를 지닌다.

『1872년 군현지도』의 제작은 당시 정권을 잡은 흥선대원군이 중앙집권적 통치 체제를 확립하고 정치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각 지방의 정보를 수집한 것과 관련이 있다. 전 국토의 실정과 군사력에 대한 현황 파악은 이미 1871년부터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1872년에는 관방(關防) 지역을 포함한 전국 군현을 대상으로 대형의 지도를 기획하였다. 『1872년 군현지도』는 전체적으로 1871년 읍지도를 바탕으로 확대 제작된 것으로 보이며, 1872년 3월에서 6월에 걸쳐 전국의 군현에서 자체적으로 완성되었다.

그러나 『1872년 군현지도』 중 전라도 지도는 1871년 읍지도를 임모(臨摹) 하지 않고 새롭게 제작하였다. 도곽(圖廓) 안에 지도를 그리고 지도 여백에 건치연혁(建置沿革)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체제를 통일하였으며 청록산수화풍의 화려한 색채와 경물의 구체적인 묘사 방식은 다른 지방의 지도와 구별된다. 전라도 지도는 기본적으로 산도 형식의 구도를 바탕으로 지형의 지세를 설명하는 풍수지리관이 강하게 표출되었으며 실재하는 비경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산수화적 표현은 실경산수화와 같은 맥락으로 제작되었다.

제주도 지도를 제외한 총 80점의 전라도 지도는 산형 표현에서 동일한 화풍이 반복되거나 실경적 요소가 강조되는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그런데 동일한 화풍으로 제작된 지도는 같은 방식으로 묘사되었더라도 안료나 채색 기법은 다르게 구사되어 밑그림과 채색 작업이 분업으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실경적 요소가 강조된 표현은 화가의 회화적 수준에 따라 묘사 방식에서 조금씩 차이가 나타났다.

따라서 전라도 지도에 보이는 화풍의 유형을 기준으로 지도 제작에 참여한 화가의 인원을 추정하였으며 전라도 지도의 필사작업에는 전라감영의 지휘 아래 화사군관을 비롯하여 지역 화가 총 30여명이 동원되었다. 전라도 지도가 다른 지역의 지도와 달리 감영에서 다시 필사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일정한 양식을 갖춘 채색지도로 탄생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당시 전라도 지역의 지도편찬을 주관했던 관찰사의 기획력과 원로화원의 숙련된 기량이 함께 발휘되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Abstract

An Analysis of Painting Styles Used in the Maps of Jeolla Province from *Joseon County-Prefectural Maps of 1872*

Kim Sunghee *

This paper studies the pictorial characteristics of 80 maps of Jeolla Province (excluding the maps of Jeju Island) from the *Joseon County-Prefectural Maps of 1872* and focuses on the maps' depiction of mountains. Additionally, this paper examines the process of making maps as well as the personnels who participated in the actual drawing.

Deemed as the final outcome of the Joseon dynasty's initiative to produce state maps, *Joseon County-Prefectural Maps of 1872* are important historical documents as they reveal local communities without any filters, though they lack consistency compared with previous maps published by local administrations. The maps in 1872 display different political, economic, and military conditions of the late 19th century. In addition, they are excellent sources to examine mapping procedures used for each region of the country since they collectively utilized all existing pictorial map-drawing techniques.

The initiative of the *Joseon County-Prefectural Maps of 1872* is related to the efforts of the regent Heungseon Daewongun to gather information on each region in an attempt to gain political ground and establish centralized authority. The 1872 maps were drawn from March to June 1872 for each *gun* (county) and *hyeon* (prefecture) nationwide, expanding the *eupji* (town gazettters) compiled in 1871 as the bases.

Among the 1872 maps, the maps of Jeolla Province, however, were newly drawn from scratch, not by copying the maps in *eupji* of 1871. All the maps of Jeolla Province adopted the same format, where a map was drawn in a bordered canvas and the important years of

* Cultural heritage appraiser,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the regional history was written down in the margins. Moreover, they are distinguished from other local maps in the way they applied various colors often found in blue-and-green landscape paintings, and the way they portrayed the scenery in detail. In general, the Jeolla Province maps clearly display a theory of geomancy, showing geographical features with a style of *sando* (graveyard maps), and depict picturesque scenes in a similar style of true-view landscape paintings.

When it comes to portraying mountains, the Jeolla Province maps can be divided in two groups: one that displays the patternized style and the other that focuses on topography. Nevertheless, the former suggests that they were sketched and colored by different artists as the pigments and color techniques on each map vary; the latter displays different in pictorial styles that varied according to an individual artist's level of skill.

Based on the painting styles of the maps of Jeolla Province, it can be assumed that thirty people, government officials specialized in painting as well as local painters, participated in drawing under the command of the Jeolla Provincial office. The Jeolla Province maps were produced with a consistent form and various colors thanks to the skilled veteran artists and the Jeolla Provincial governor in charge of publishing the maps.